확 늘어난 스포츠클럽 다양한 운동 즐기세요

대한체육회 육성지원 사업
광주·전남 4개 클럽 추가 선정
우수선수 발굴·저변 확대 기대

광주·전남 지역민들이 스포츠 클럽 확대로 다양한 운동경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스포츠클럽은 국민 누구나 손쉽게 체육시설,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스포츠 저변을 확대하고 선수를 발굴함으로써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을 연계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하기 위해 도입됐다.

23일 광주시체육회와 전남도체육회에 따르면 최근 대한체육회가 주관한 2021년 스포츠클럽 육성지원(전문선수반 운영) 사업에 서구스포츠클럽이 선정됐다.

스포츠클럽 육성지원 사업에 선정되려면 지원기간(3년) 동안 해당 종목에 대한 선수반을 1년 이상 운영하고 있어야 가능하다. 광주에서는 서구스포츠클럽이 높은 평가점수를 받아 신규 심화 2개반(야구, 바둑)이 선정돼 예산 5000만 원을 지원받게 됐다.

현재 광주 지역 전문선수반은 5개 스포츠클럽 14개 종목이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 1월에 실시한 1차 공모사업(6억 5000만 원 확보)에 이어 5000만 원을 추가해 총 7억원의 국비 확보라는 성과를 거뒀다.

광주시체육회는 학교연계형 스포츠클럽 확대도 추진하고 있다.

빛고을테니스클럽(테니스), 광주궁도스포츠클럽(궁도), 행복남구양궁스포츠클럽(양궁) 등 3개 클럽이 공모에 응한 상태며 이달 말 대한체육회에서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클럽에는 연간 8000만원씩 5년간 총 4억 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도체육회에서도 스포츠클럽 공모에서 3개 클럽이 선정되며 사업비 6500만원을 확보했다.

선정된 클럽은 나주스포츠클럽(골프), 세한스포츠클럽(축구), 순천스포츠클럽(탁구) 등이다. 나주스포츠클럽, 세한스포츠클럽은 각각 2500만원을, 순천스포츠클럽은 1500만원을 지원받는다.

스포츠클럽 육성지원사업은 클럽 중심 선수육성을 통한 우수선수 발굴 및 지역 내 종목 선수 저변확대를 위해 실시하는 선수반을 심화·발전시킬 수 있도록 기존 선수반을 3가지(기본·심화·우수)로 구분하여 차등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체육회는 "스포츠 클럽 확대로 우수선수 발굴 및 지역 종목 선수저변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고진영·박인비·김세영 "올림픽 출전 영광"

메이저 대회 PGA챔피언십 오늘 개막… 대회 결과 상관없이 도쿄행

고진영

박인비

김세영

여자 골프 세계 랭킹 1, 2, 4위인 고진영(26), 박인비(33), 김세영(28)이 도쿄 올림픽에 나가게 된 것에 대해 "한국 대표팀에 들어가기 쉽지 않은데 이를 이뤄내 영광"이라고 말했다.

이들 세 명은 24일(한국시간) 미국 조지아주 존스 크리크의 애틀랜타 애슬레틱클럽(파72·6831야드)에서 열리는 KPMG 여자 PGA 챔피언십(총상금 450만 달러)에 출전한다.

올해 세 번째 메이저 대회인 KPMG 여자 PGA 챔피언십이 끝난 뒤 발표되는 28일 자 세계 랭킹으로 7월 도쿄 올림픽에 나갈 선수들이 정해진다.

그러나 현재 세계 랭킹 1, 2, 4위인 고진영, 박인비, 김세영은 이 대회 결과와 관계없이 사실상 도쿄행 티켓을 확보했다.

28일 자 세계 랭킹 기준으로 15위 내 한국 선수 상위 4명이 올림픽에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 세 명과 현재 8위인 김효주(26)가 도쿄 올림픽에 나갈 것이 유력하다.

그다음 순위는 16위 유소연(31)인데 유소연이 이번 대회에서 우승하더라도 고진영, 박인비, 김세영을 추월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낸 박인비는 23일 KPMG 여자 PGA 챔피언십 대회 장소에서 열린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생애 두 번째로 올림픽에 나가게 됐는데 이것은 나의 중요한 목표였다"며 "사실 한국 여자골프 국가대표가 되려면 세계 10위 안에 들어야 하는데 꾸준한 성적으로 이를 이뤄낸 저 자신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김세영은 지난해 KPMG 여자 PGA 챔피언십에서 생애 첫 메이저 우승을 달성했다.

'디펜딩 챔피언' 자격으로 이번 대회에 나온 김세영은 "2016년 리우올림픽 때 좋은 경험을 했다"며 "올림픽 출전을 통해 자신감도 많이 얻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리우 올림픽에서 공동 25위에 올랐던 그는 "올림픽에 국가대표로 나가는 것은 나의 가장 큰 목표였다"며 "리우에서 원하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좋은 성적을 내도록 잘 준비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인비, 김세영과 달리 현재 세계 1위 고진영은 이번이 첫 올림픽 출전이다. 고진영은 "한국 선수들의 실력이 좋아 올림픽 대표가 되기는 정말 쉽지 않다"며 "올림픽에 나가게 돼 기쁘고, 빨리 올림픽 무대를 경험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연합뉴스

예선 탈락에도 16강… '럭키 루저' 권순우

권순우

ATP투어 예선 1회전 패배했지만
5명 줄줄이 기권하며 본선행
본선 1회전 부전승 행운까지

권순우(77위·당진시청)가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바이킹 인터내셔널(총상금 54만 7265 유로) 단식 16강에 오르는 행운을 얻었다.

권순우는 영국 이스트본에서 열리는 이 대회 예선에 출전했으나 19일 예선 1회전에서 앨러스테어 그레이(1041위·영국)에게 1-2(6-4 2-6 3-6)로 져 탈락했다.

본선 출전이 좌절된 권순우는 그러나 본선 대진표에 이름을 올렸던 선수들이 줄줄이 기권한 덕에 '럭키 루저' 자격으로 본선에 올랐다.

테니스에서 '럭키 루저'는 예선에서 패해 탈락했지만 본선 대진표에 기권자 등으로 인한 빈자리가 생겨 본선에 뛰게 된 선수를 뜻한다.

'럭키 루저'는 대개 예선 최종전에서 패한 선수 중에 차례가 돌아가기 마련인데 이번 대회에서는 본선 선수 가운데 5명이나 기권해 예선 1회전 탈락자인 권순우에게까지 본선 기회가 왔다.

또 권순우는 4번 시드였던 니콜로스 바실라시빌리(28위·조지아)가 빠진 자리로 들어가면서 본선 1회전을 부전승으로 통과하는 행운까지 얻었다.

권순우는 1회전을 치르고 올라온 마르톤 푸초비치(49위·헝가리)와 8강 진출을 다툰다.

푸초비치는 1회전에서 알랴즈 베데네(64위·슬로베니아)를 2시간 43분 접전 끝에 2-1(7-6〈7-3〉 3-6 7-6〈7-3〉)로 물리쳤다. /연합뉴스

'도핑 검사 방해' 쑨양 도쿄행 불발

재심서 4년 3개월 자격정지
남자 자유형 400m 무주공산

도핑 검사 방해 혐의를 받아온 중국의 수영 스타 쑨양(30)이 스포츠중재재판소(CAS) 재심에서도 4년 이상의 자격 정지 징계를 받으면서 2020 도쿄 올림픽 자유형 중장거리 종목의 메달 향방에 더욱 관심이 쏠리게 됐다.

특히 남자 자유형 400m의 경우 이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들이 모두 '도쿄 라인업'에서 제외되면서 무주공산'이 된 형국이다.

CAS는 22일(현지시간) "재심 재판부가 쑨양에게 4년 3개월의 자격 정지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쑨양은 다음 달 개막하는 도쿄 올림픽에는 나설 수 없게 됐다.

쑨양은 올림픽에서 3개,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11개의 금메달을 딴 남자 자유형 중장거리의 세계적인 강자다. 자유형 1500m에서는 세계기록(14분31초02)도 갖고 있다.

이번 도쿄 올림픽에서는 박태환도 볼 수 없다.

쑨양

박태환은 지난달 열린 국가대표 선발전에 참가하지 않았다. 아예 올해 대한수영연맹에 선수등록조차 하지 않았다.

'디펜딩 챔피언' 호턴도 도쿄 올림픽 자유형 400m에는 출전하지 못한다.

올림픽 수영에서는 한 나라에서 종목별 최대 2명까지만 나설 수 있지만, 호턴은 이달 열린 호주 대표선발전에서 일라이자 위닝턴, 잭 매클로플린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호턴은 개인 종목에서는 모두 도쿄 올림픽 출전권을 얻지 못했고, 단체전에만 나설 예정이다.

올해 남자 자유형 400m 세계랭킹 1, 2위는 지난 12일 호주 대표선발전에서 1, 2위를 차지한 위닝턴(3분42초65)과 매클로플린(3분43초27)이다. /연합뉴스

혼신의 힘을 다해

23일 영국 이스트본에서 열린 WTA 이스트본 인터내셔널 32강전에서 이탈리아의 카밀라 지오르지가 체코의 카롤리나 플리스코바를 상대로 강력한 포핸드를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즐거운 문화산책

LOTTE CINEMA | 충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발신제한
2관	발신제한
3관	크루엘라
4관	킬러의 보디가드 2
5관	킬러의 보디가드 2
6관	콰이어트 플레이스 2
9관	발신제한, 콰이어트 플레이스 2
7관 씨네커플	루카, 분노의 질주: 더 얼티메이트 여고괴담 여섯번째 이야기: 모교
8관 씨네커플	콰이어트 플레이스 2 컨저링3: 악마가 시켰다 메이드 인 루프탑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GAC기획공연 포커스
토니 윤 피아노 리사이틀
일시 : 2021. 06. 26.(토) 19:30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3

2021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뮤지컬 〈캔터빌의 유령〉
일시 : 2021.07.10.(토)~11.(일) 토 19:30, 일 15:00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7